

생과 사의 엄혹한 경계 섰을 그들 기억하다

CULTURE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5월의 숲에서는/원 자작나무 뱃속에 푸른 눈의 아이들이 논다/비린 피와 욕망의 냄새로 그윽한 그 숲속에서/나는 문득 혼곤한 잠에 빠져든다/총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생과 사의 엄혹한 경계에서 피어나는/꽃들의 독한 향기가 난 만하다/직립의 나무들이 제 꿈을 바람에 날리며/연두색 풍경을 이루는 5월의 숲속에서/햇빛은 화살처럼 쏜다/화살에 찔린 심장에서는 붉은 피가/고로쇠나무 수액 같은 눈물이 흐른다 비릿한/5월의 바람이여//...하락...’

위 시는 5·18민중항쟁 45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숙)가 오월문학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4월 21일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국립 5·18민주묘지와 옛 적십자병원 사적지에서 열고 있는 결개시화전에 출품된 시화 중 김경윤 시인의 시 ‘5월의 잠’ 1연이다.

처절한 그날을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시 작품이다.

올해 오월문학제는 가장 처연한 5·18항쟁의 의미를 오롯하게 되새기며 각별한 행사로 기억될 듯하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온 나라가 비정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문학제’

24~25일 전일빌딩245 강당서

.....

심포지엄, 5·18문학상 시상식

민주묘지 등서 결개시화전도

상체제로 빠져들면서 평화로운 일상마저 파괴됐기에 다시 평화로운 일상의 복원은 더없이 중요하게 됐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회원들과 집행부를 중심으로 탄핵정국에서 광장 집회를 끈끈한 단합을 통해 이끄는 등 주도적으로 파면 촉구 집회를 추진한 바 있다.

비상계엄은 무효화시켰지만 여전히 내란은 계속되고 있기에 진영논리를 떠나 민주정립의 수업을 통해 온 나라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 등 안운의 일상이 걸린 6·3대선까지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월문학제는 더욱더 문학인들이



광주전남작가회의는 올해 ‘오월문학제’를 24~25일 전일빌딩245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오월문학제’ 모습.

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열망을 복돋을 전망이다. 본 행사에 앞서 내걸린 시화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어인 ‘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문인들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월문학제는 ‘오월 너머의 문학, 세계의 물결로’라는 주제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 등에서 열린다.

이번 오월문학제는 심포지엄과 5·18문학상 시상식, 본행사 등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먼저 오월문학 심포지엄은 24일 오후 2시 김영삼 평론가의 사회로 기초발제에는 고명철 평론가가, 발제에는 김효숙·장은영(조선대 교수) 평론가가 나서고 토론은 강덕환·김연 시인, 손병현 소설가, 이정훈 평론가 등이 맡는다. 이어 이날 오후 4시부터는 5·18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과 축사, 시·소설·동화 등 세 장르에 걸친 5·18문학상 신인상 및 본상 시상식이 열리게 되며,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 소감 발표와 축하공연 및 기념촬영 등도 마련된다.

이날 하이лай트인 본행사는 오후 5시부터 사회로 오후 5시부터 펼쳐진다. 개회선언과 민중의례, 김미숙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 이지담 광주전남작가회의 고문의 환영사, 강현철 한국작가회의 이사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사, 신기훈 회장(대구경북작가회의)과 김순영 회장(충북작가회의)의 연대사가 각각 이뤄진다.

또 문동만(한국작가회의), 최진(안동작가회의), 이미숙(대전작가회의), 전숙경(광주전남작가회의), 장마리(전북작가회의), 김경애(목포작가회의), 나여경(부산작가회의), 김현주(광주전남작가회의 부회장) 씨 등의 시낭독이 전개된다.

인천작가회의와 여수작가회의 및 제주작가회의의 축하공연도 준비된다.

이외에 선언문낭독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폐회선언, 기념촬영을 끝으로 대대원의 막을 내리며 25일에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이 거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 콜라보 전시 선포

대담미술관, 진허 작가·김주안 플로리스트 스토리 담아

‘This is for you’ 주제 31일까지 ‘너에게 숲을 줄게’ 첫선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아티스트와 플로리스트의 콜라보 전시인 기획초대전을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This is for you”라는 주제로 갖는다.

이번 전시는 ‘누군가를 향한 마음, 그 자체가 예술이 될 때’라는 주제로 아티스트 진허 작가와 김주안 플로리스트가 각각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여성으로서의 삶을 나이에 빛대어 표현해온 진허 작가는 기존의 여성체를 뺀 채소로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숲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너에게 숲을 줄게’ 시리즈를 신작으로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진허 작가는 “밭에서 키운 채소를 농사지어 자식을 위해 나눠주는 엄마를 보며, 왜 잘 먹지도 않

는데 먹으라고 가져다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작가 본인도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채소를 다듬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엄마가 전하는 사랑이 담긴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또 김주안 플로리스트(투이플라워클럽)는 꽃을 판매하고,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꽃이 갖는 일상 속의 철학을 담아 전시를 여는 등 다양한 예술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김주안 플로리스트는 꽃다발, 꽃바구니 등 기존장식의 틀을 깨고, 채소가 화분삼아 꽃과 어우러지게 연출하고 있다. 진허 작가의 ‘너에게 숲을 줄게’ 작품에서 영감받아 담긴, 브로콜

리, 풋마늘과 꽃을 콜라보한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에 참여한 진허 작가는 “그동안 많은 전시에 참여해왔지만, 다른 영역과 콜라보한 새로운 시도는 참신하게 다가왔다”며 “작가로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김주안 플로리스트는 “한 공간에서 너를 위한 마음을 주제로 진허작가와 콜라보한 것이 신선한 실험과 같았다”면서 “꽃이 지닌 의미를 독창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대담미술관 최아영 부관장은 “꽃은 피는 순간만이 아니라 스러지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다”며 “꽃이 지고 난 뒤 열매가 맺히는 자연의 흐름처럼, 이번 전시는 진허 작가의 작품을 통해 꽃이 지고 채소가 돼 가는 과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약물 중독’과 주변인들의 이야기 연극으로

ACC재단, 연극 ‘컨설팅 아더스’ 내달 26~29일 극장 1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을 맞아 ‘약물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연극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 ACC재단)은 약물 중독 문제를 다룬 스코틀랜드의 다원 연극 ‘컨설팅 아더스’(Concerned Others)를 오는 6월 26일과 27일 오후 7시 30분, 28일과 29일 오후 3시와 6시 등 총 6회에 걸쳐 전당 극장 1에서 선보인다.

‘컨설팅 아더스’는 약물 의존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중독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2023년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첫선을 보인 뒤 스코틀랜드 연극상 ‘최고의 프린지 작품’ 부문 준우승에 이어 시카고 국제 인형극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등 국제적으로 작품

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단순히 약물 의존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낙인과 편견을 벗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품은 한 명의 배우가 초승달 모양의 탁자에서 인형극을 하거나 소형 카메라로 작은 모형들을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또 약물 의존 경험자와 의사, 가족과 친구, 중독 지원 서비스 종사자 등 그 주변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녹음해 극에 녹여냈다.

목소리와 함께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영상은 관객에게 마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공연은 원본 그대로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하며, 한국어 자막으로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입장료는 2만원. 김다경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스코틀랜드의 다원 연극 ‘컨설팅 아더스’를 오는 6월 26~29일 극장 1에서 선보인다.

내일의 꿈을
지금 시작하라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평가를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인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공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물루션 검색